

SK-중국 푸단대 생명과학 협력!

공동기술 개발 추진중 ... 연구개발은 물론 의료인력 양성사업도

SK가 중국 푸단대와 신약개발 공동연구 등 생명과학분야의 산학협력을 추진한다.

SK 손길승 회장은 2003년 1월20일 상하이로 방문해 푸단대 왕성홍(王生洪) 총장을 만나 중약(中藥) 분야의 신약개발 공동연구를 비롯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명문인 푸단대는 2002년 6월 SK와 함께 푸단-SK 인큐베이션센터를 설립해 벤처창업과 공동기술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양측이 연구개발 협력은 물론, 의료인력 양성사업도 함께 할 계획이다.

SK는 상하이시와 신약개발공동연구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한편, 2002년 12월 상하이 신약개발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지역 내 생명과학 사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손길승 회장은 푸단대 방문에 이어 상하이 신약개발연구소에서 야니리우우(Yani Liu Wu)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연구개발 계획을 보고 받고 1월23일 귀국할 계획이다.

2006년에는 중약을 바탕으로 한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해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상하이 신약개발연구소는 우울증 치료제의 합성프로세스 개발과 항암제의 비만증 치료제 가능성 등을 연구하고 중약 후보물질 합성프로세스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3/ 01/ 21 >